

담양군, 호우 피해 복구비 1,230억 투입... '안전 담양' 재설계

'군민과의 대화' 공금증 해소, 예산 운용 현황 투명 공개

재난지원금·위로금 59억 원 지급으로 군민 일상 회복 지원

담양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확보한 1,230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 소통에 나섰다.

군은 최근 마무리 지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확보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개별 지원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등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운용 현황을 상세히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409억 원(공공시설 222억, 사유시설 186억)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로 1,23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군은 이 예산을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 '재해에 강한 안전한 담양'으로 거듭나자는 방침이다.

◆ 복구비 1,230억 원, 어디에 쓰이

나?... 95%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투입. 군은 주민들이 확보 예산 규모에 비해 개별 지원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군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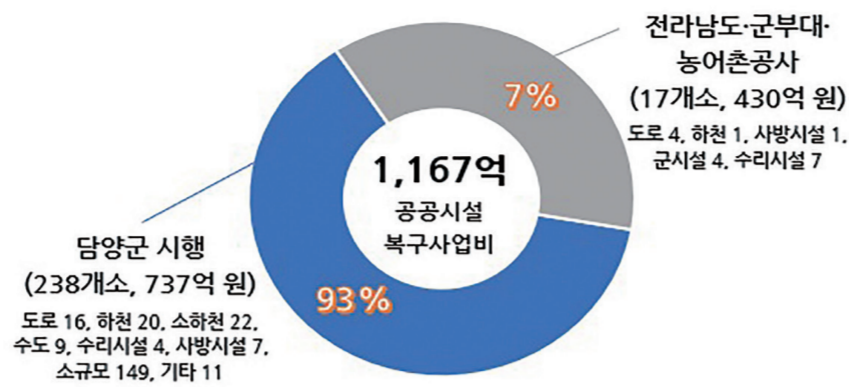
담양군이 확보한 복구비(1,167억 원)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위로금(63억 원)'으로 나뉜다. 전체 예산의 95%인 1,167억 원은 도로·하천·교량 등 마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기반 시설 재건에 집중 투입된다.

◆ 재난지원금·위로금 59억 원 지급 완료... 정부 기준에 따른 투명한 집행

주된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재난지원금·위로금은 총 63억 원으로, 이 중 정부 기준에 따른 부적격 요소를 제외한 59억 원이 이미 3,425세대에 지급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주요 지급 내역은 ▲위로금 21억 ▲농작물 침수 피해 12억 ▲농경지 유실·매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 주체별 예산 배분 현황



물 9억 ▲주택 침수 8억 2천 ▲농림시설 침수 5억 8천만 ▲소상공인 1억 8천만 원 등이다.

위로금은 주택·상가·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 기존 지원금에 추가·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 침수의 경우 가전·가재도구 피해 지원 차원의 위로금 35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생계 안정 명목의 5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농·임업 분야는 피해 규모별 위로금을 차등하여 추가 지급했다.

◆ 장마 전 주요 공정 완료... 2차 피해

방지 총력. 현재 담양군 내 재해복구 사업장은 총 238곳으로, 이 가운데 88곳은 이미 복구를 마쳤으며, 나머지 15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발주 단계에 있다.

군은 다가올 장마철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공사 기간이 긴 중·대규모 사업장은 주요 구조물 공정을 우선 완료해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할계약과 설계 경제성 검토 제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속 추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보성군-보성농협-한국외식업중앙회

농특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은 16일 보성군청에서 보성군(군수 김철우), 보성농협(조합장 문병원),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가 보성군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보성농협과 함께 지역 농가의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문병원 보성농협조합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송해경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장, 이문균 보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추진 의지를 다졌다.

주요 내용은 ▲보성군의 농특산물 구매·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보성농협의 고품질 보성 쌀 및 녹두의 연간 안정적 공급, ▲한국외식업중

양회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보성군 농특산물 우선 구매 홍보 등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외식업계와의 공급망을 기반으로 보성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성군의 고품질 농특산물이 외식업계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며 "앞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늘의 협약은 보성군 농가와 외식업계, 그리고 보성농협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성군 농특산물이 국내외 다양한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은기 기자

영암군이 누구나 참여해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SNS 숏폼 영상 공모전' 참가 작품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숏폼으로 영암왕인문화축제 담아주세요

4월 12일까지 500만원 상금 규모 'SNS 숏폼 영상 공모전'

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점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 form) 올리면 된다.

참가 희망자나 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공개 계정인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츠에 20~60초 분량의 숏폼 영상을 게시한 뒤, 네이버폼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1차 정량, 2차 전문가 평가로 이뤄진 심사를 거쳐 4월 말 경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 총 9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을 시상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군 홍보전략실 미디어팀(061-470-2623)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곡성군, 로즈캔들 만들기 이벤트 체험객 모집

'장미빛을 담다'를 주제로 체험형 관광 행사 추진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장미빛을 담다'를 주제로 한 로즈캔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장미의 뜰'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관광 행사로, 봄을 맞아 장미의 향기와 감성을 직접 담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이며 하루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22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xnOaBEWJ)을 사전 접수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 1만 5천 원이며 체험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장미 드라이플라워를 활용

해 나만의 캔들을 제작하고 완성된 캔들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체험이 진행되는 '장미의 뜰'은 시범 운영에 맞춰 장미의 향기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미공원에서 봄의 정취를 더욱 깊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미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해 곡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라며 "따스한 봄날 장미의 뜰에서 향기로운 추억을 만들며 일상 속 작은 설렘과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흥군,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드론 물품 배송과 치안·녹조·화재 감시 등 공공서비스 병행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드론을 활용한 물품 배송과 공공서비스 실증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군은 득량도, 상·하화도 등 섬 지역과 거금해안휴식공원, 고흥수변노을공원 등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물품 배송을 넘어

치안 순찰, 산불·화재 감시, 양식장 녹조 예찰 등 공공서비스를 추진해 드론기반 지역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드론 배송 거점 3개소와 배달점 15개소를 구축하고 항로를 개설하는 등 드론 배송을 위한 운영 체계를 모두 갖췄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모델을 정착시키고, 드론 산업 선도 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물류 복지와 지역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드론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진도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92개 점포 골목형상점가 구역 지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진도군은 침체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쌍정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의 92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m²)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

는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점이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는 선할인과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은 신청서, 구역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진도군은 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통시장법의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